

'흑백요리사' 인기로 '흑백복지사'도 뜨네

광주·전남 지자체, 복지사업·축제 등 패러디 홍보 잇따라 야시장 홍보 활용·음식축제에 스타 셰프 초청 '관심 폭발'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의 인기를 홍보와 축제 이벤트에 활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종 패러디 홍보물을 제작한 데 이어 축제 흥행을 위해 흑백요리사 출연 요리사 모시기에 나섰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8일 광산구 유튜브 계정에 '흑백복지사:최고의 복지'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의 제목은 '깜짝 놀라게 한 가장 신박한 복지'지만, 흑백요리사의 패러디물이다.

강, '식사', '수거', '일상' 등 7가지 복지사업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정수 광산구 미디어팀장은 "요즘 가장 핫한 흑백요리사의 인기를 이용해 광산구만의 복지를 홍보하기 위해 시도한 영상"이라며 "숏폼의 시대인만큼 1분이 넘는 영상은 보통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 영상은 2분 분량의 영상임에도 조회수가 1000회 가까이 나와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남구도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해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는 홍보실 등 구청 직원들이 직접 토요일 야시장을 방문해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역할을 하며

음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 중이다. 흑백요리사에 참가했던 요리사들이 광주·전남 지자체 음식 행사에 참여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에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정지선, 임희원, 오세득씨가 직접 부스를 운영해 화제가 됐다.

이들이 준비해간 3일 분량의 식재료는 하루만에 동이났다.

전남도청 글로벌 축제 TF팀 관계자는 "세계적인 음식축제이고, 올해 30주년을 맞은만큼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음식을 선보이고자 셰프들을 섭외했다"며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데는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청 광장에서



광주시 광산구가 유튜브에 올린 '흑백복지사'의 한 장면. (광산구 유튜브 갈무리)

열리는 '우주최고 김치파티'에는 '스타셰프 푸드쇼' 코너에서는 흑백요리사 여경래, 최현석, 파브리씨가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18일 오후 5시에는 여경래 셰프가 대하김치를, 최현석 셰프는 여수 돌산 갓김치를 활용해 김치요리를 만든다. 19일에는 정관순님이 팬드

라미 백김치 목밥을, 파브리 셰프가 갓물김치를 활용한 문어 냉파스타를 요리한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사가 광주를 찾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셰프 식당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직접 만든 요리를 먹어볼 수 있다니 안갈 이유가 없다', '셰프들이 만드는 김치 요리가 궁금하다' 등 관심을 얻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12부작으로 편성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백종원과 안성재 요리연구가를 비롯해 최현석, 여경래, 정지선, 에드워드리 등 유명 요리사가 출연했다. 광주에서는 서구농성동에서 '가매'를 운영하고 있는 안우성씨가 나와 화제가 됐다.

/김대기 기자 kdi@kwangju.co.kr



세계요리 맛보자 '광산 세계 야시장' 행사가 열린 지난 1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 행사장에서 시민들이 베트남·중국·인도·터키·카자흐스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부스에 몰려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기념재단, 노태우 일가 비자금 고발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 범죄 수익 은닉·부정축적 의혹을 받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다.

재단은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씨, 아들 노재현씨, 딸 노소영씨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노소영씨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옥숙씨가 이른바 '904억 메모'를 범법에 제출하면서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온 사실을 확인,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도 포탈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과거 법원 판결에 따르면 SK주식은 노태

우의 범죄수익 300억원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노소영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분할금을 취득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단은 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옥숙씨가 2000~2001년 210억원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합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 추징금 완납 이후 숨겨두었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노재현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증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김옥숙씨 등이 '노 전 대통령의 유산은 연회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등 추징 이후 은닉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다른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은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시급히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줄지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TX 열차 운행도 '호남 차별'...경부축의 절반 수준

평일·주말 100회 안돼...좌석수도 7만여석 적어 '예매 전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 철도 KTX 열차를 호남 방항으로는 현저히 적게 편성하는 등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노선별 KTX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평일 기준 호남축(호남·전라선)의 KTX 열차 운행 횟수를 90회만 편성했다. 이는 경부축(경부·경전·동해선) 161회에 비해 56% 수준에 불과하다.

주말 기준으로도 호남축에는 92회만 편성해 경부축 195회에 비해 절반 수준만 운행하고 있다.

더욱이 호남선에는 좌석 수가 일반 KTX(955석)보다 적은 KTX-산천(379~410석)을 더 높은 비율로 편성해 실제 탑승 가능 좌석 수 차이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노선별 KTX 탑승 가능 좌석 수는 호남축은 평일 5만 9264석, 주말 6만 2054석에 그쳤다. 반면 경부축은 평일 12만 5947석, 주말 15만 1927석으로 호남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명절에도 '객차차별'이 이어졌는데, 올해 추석 기간 동안 호남축에서는 580회의 KTX를 운행했으나 경부축에서는 1208회를 운행했다. 탑승 가능 좌석 수는 호남축 38만 3356석, 경부축 92만 4290석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경부축과 호남축 간 KTX 운행 편성 차이가 너무 심한 탓에 호남 사람들은 주말과 명절마다 '예매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며 "KTX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SOC인만큼, 이같은 불편을 방지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적 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년간 전남서 농기계 사고 사망자 '전국 두번째'

전남에서 농기계 사고로 한 해 평균 14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932건으로, 71명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5년간 11건의 농기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전남은 경북(1487건), 경남(1003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경북(11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전남지역에서 2018년 177건(사망자 22명), 2019년 173건(21명), 2020년 207건(13명), 2021년 191건(10명), 2022년 184건(5명)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연평균 186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는 2019년 2명이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형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2로 36